

## C-5. 전악 치은확장을 위한 1회 수술법 (One step procedure for full arch gingival extension)

정철용\*<sup>1,2</sup>, 한응택<sup>1,2</sup>, 정현주<sup>1</sup>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sup>1</sup>, 광주 메트로치과병원 치주과<sup>2</sup>

치주조직의 건강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최소량의 부착치은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장기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치은 치조점막 문제를 진단하여 치료가 필요한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치주조직의 염증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치은 퇴축에 의한 임상적 증상을 호소하거나 지속적인 부착소실을 보이는 경우, 그리고 구강위생이 어려운 경우, 치경부에 수복물변연이 위치하는 경우, 그리고 심미적 보철을 위해서 치은두께를 증가시키고자 할 때 치은치조점막수술이 필요하다.

치은을 증가시키는 방법에는 퇴축부위의 하방의 각화성부착치은을 늘려주는 방법과 퇴축부위의 상방부의 노출 치근면을 피개하는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퇴축부위의 하방에서 확장하는 술식으로는 퇴축 치은변연이나 치은-점막경계부 하방에 수용부를 형성하면서 치근면 노출의 피개를 시도하지 않는 방법이며 유리치은 이식술, 결합조직 이식술, 근단변위 판막술이 있다. 퇴축부 상방으로 노출 치근을 덮어줌으로서 치은을 증가시키는 방법에는 유리치은이식술, 결합조직이식술, 치관측/측방변위 유경판막술, 조직유도재생술 등이 사용된다.

치은이식술을 시행하는 경우 조직공여를 위하여 2차적 수술부가 필요하며 여러부위에 시술이 필요한 경우 2~4회에 걸쳐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게 되어 장기간 환자에게 불편감을 줄 수 있다. 이런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증례에서는 전악에 걸친 부착치은 부족과 치은퇴축이 있는 경우 1회 수술로 해결하고 상악에 splint를 이용하여 수술부위를 보호하였다. 그리고 퇴축부가 심미성이 요구되는 부위인 경우는 부착치은 상방을 늘리는 술식을 그렇지 않은 부위는 하방을 늘려주는 술식을 이용하여 환자의 불편감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좋은 임상적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